

##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복원 성공... 6년전 준성체 방사 후 920마리까지 늘어나

- 국립생태원 복원 성과 기념행사 개최, 무선개체식별장치 활용한 과학적 연구 병행으로 전국 확산에 활용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금개구리의 복원 성공을 기념해 6월 23일 오후 원내 수생식물원(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복원 성과를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금개구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6년 전인 2019년 수생식물원 일대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최근까지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재도입하여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수생식물원 일대는 국립생태원이 설립(2013년 10월)되기 전에 논으로 쓰였던 습지였고 금개구리가 발견된 곳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금개구리에 무선개체식별장치(PIT-tag,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를 활용하여 개체수를 추정하고 확산 및 이동을 파악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금개구리 복원 성공의 본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금개구리 서식지 확대를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개구리는 전국에 분포했으나 도로 건설 및 농지의 감소,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몸길이는 3.5~6cm 정도이며, 눈 뒤에서부터 등면 양쪽에 갈색, 금색의 뚜렷한 2줄이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금개구리를 포함한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금개구리 생물정보 및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국립생태원<br>멸종위기종복원센터 | 책임자 | 팀 장   | 윤주덕 | (054-680-7360) |
|               |                    | 담당자 | 전임연구원 | 권관익 | (054-680-7365) |



## 붙임 1

## 금개구리 생물정보 및 사진

- 종 명(학명) : 금개구리(*Pelophylax chosonicus*)
- 보 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VU(취약)
- 형 태 : 몸길이 4~6cm, 등면에 금색선이 2줄 있음
- 분포현황
  -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인천, 고양, 광명, 시흥, 안산, 태안, 논산, 아산, 서천, 당진, 김제, 부안 등)
- 생태특성
  - 4월~10월 활동기, 5월~7월 번식기, 10월~3월 동면기
  - 논, 도랑, 연못, 저수지 등과 같은 물가에 주로 서식
  - 수명은 6~8년, 암컷 한 개체 당 매년 600~1,000개의 알을 산란
  - 이동거리가 짧고 행동권이 좁아 서식지 훼손에 취약
    - ※ 일일 평균 이동거리=9.8m, 최대 이동거리=38m, 행동권 면적=714m<sup>2</sup>
- 위협요인
  - 농약·비료, 콘크리트 농수로, 기계식 농업, 각종 개발 및 기후변화
  - 큰입우렁,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 및 가물치, 백로류 등 포식자



금개구리 성체(좌) 및 서식지 전경(우)

### 1. 금개구리의 서식지는 왜 위협받고 있나요?

- 금개구리는 주로 저지대 논습지에 서식하는 종으로, 최근 농약 사용 증가, 수로 정비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개구리 서식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금개구리는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수중 환경을 선호하는 종으로, 물 밖으로 잘 이동하지 않으며, 산란지와 서식지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될 경우, 산란지·서식지·동면지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며, 개체군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금개구리의 안정적인 보전과 개체군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서식지의 보존 및 생태적 연계성 확보가 시급하며, 개발계획 수립 시 서식지 영향 최소화와 보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Endangered specie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I 급 또는 II 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 **재도입(Reintroduction)**

- 원래의 서식 범위에서 절멸된 생물체를 원래의 서식 범위 안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하는 것으로 재도입은 보전대상 종(focal species)을 그 서식 범위 내에서 재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

-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Tag 로 외부 안테나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고유번호를 안테나가 인식을 한다. Tag 자체의 전력소비가 없어, 전지교환 없이 영구적 사용 가능하며, 작은 크기(12.0×2.12mm)로 소형동물의 장기간 모니터링에 적합하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및 연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948년에 설립된 국제환경보호기구

○ **IUCN 적색목록(Red List)**

-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지구 동식물종의 보존생태 목록
- 생물종을 총 9개 범주로 구분함(절멸 EX, 야생절멸 EW, 위급 CR, 위기 EN, 취약 VU, 준위협 NT, 관심대상 LC, 정보부족 DD, 미평가 NE)